

## [Story Briefing] 투표시간을 연장해야하는 사회경제적 이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대다수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왔던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협에 빠지게 되고 극소수 부자와 힘 있는 계층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모순을 다음의 7가지 사실을 통해 적시한 것을 옮겨본 것이다.(Robert Reich, 2012, 『Beyond Outrage』, 서문)

.....◇  
1.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경제성장의 과실은 최상층 1%에게로 집중되었다.



현재 미국의 400대 최고 부자들은 미국 시민 절반인 1억 5천만 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경영자 중위 연봉은 870만 달러(약 100억 원)이다. 월가의 경영자와 핵심 펀드매니저와 일반 미국인의 임금 격차는 현재 약 300배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의 연봉이 109억 원이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의 약 120배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환산을 하면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과 1천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하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수백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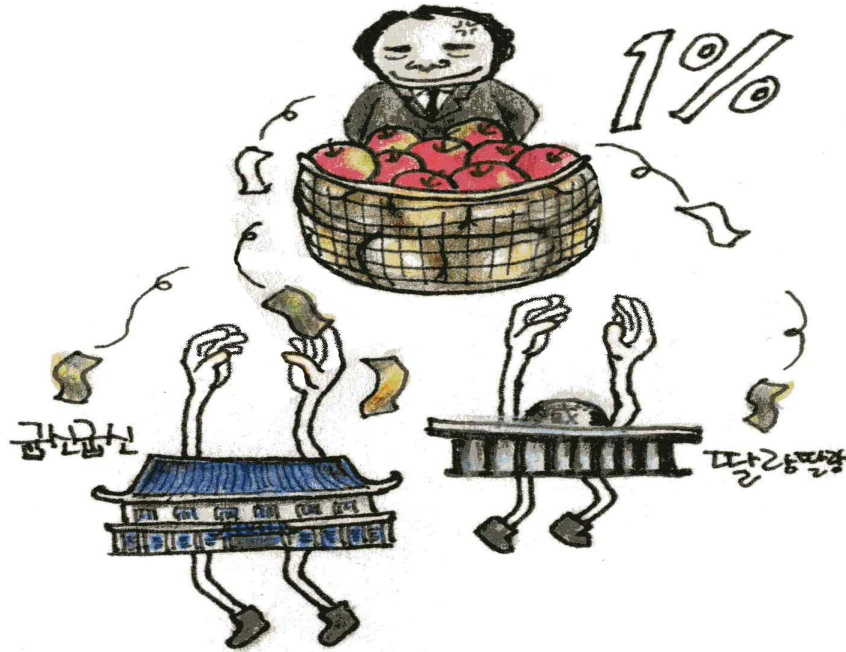
.....◇  
2. 2008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경제는 5년째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최상층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미국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지 않았고, 때문에 빚을 얻어서 소비했다. 2007년까지 빚을 포함하여 소득의 110%를 소비했다. 빚으로 주택을 사고 금융투자를 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부채거품이 터졌다. 더 낮아진 소득 100% 가운데 이자 상환을 하고 나면 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계 소득은 5배 정도가 늘었는데 부채가 10배가 늘었다. 1992년 110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현재 1100조 원으로 불어났다.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 주택을 샀고, 주택가격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빚을 얻어 소비할 수 없게 되었다.

.....◇  
3. 경제적 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최상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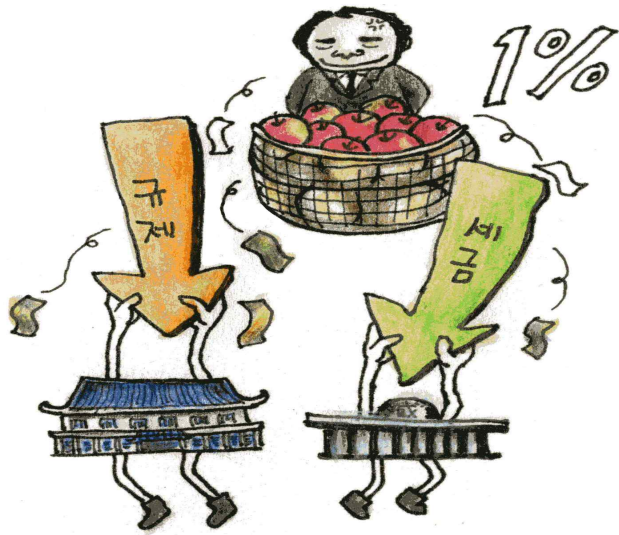
미국의 정치가들은 재선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정치자금에 필요했고, 그 돈들은 대기업 경영자와 월가의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들에게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의 경제 권력은 점점 더 커져갔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개탄할 정도로 재벌은 정치, 관료, 검찰, 언론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다. 그 결과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집권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  
4. 기업과 슈퍼 부자들은 낮은 세금, 기업 특혜, 규제 완화를 댓가로 받았다.

미국의 기업들이 정치가들을 후원하면서 특히 가장 바란 것은 감세였다. 레이건 정권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부자 세율이 7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30%까지 내려왔고, 특히 슈퍼 부자가 주로 혜택을 보는 자본 이득세는 15%에 불과한 지경으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과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계속되었고, 감세도 계속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전면적인 감세를 실시하여 지난 4년 동안 무려 63조 8천억 원의 감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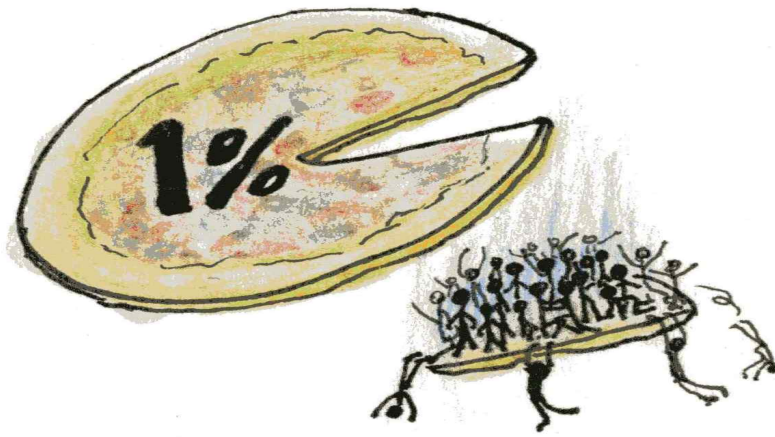
.....◇  
5. 정부예산은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미국에서 소득과 재산이 최상층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들의 세율은 떨어졌고, 반면 중산층의 월급은 정체되거나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가파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교육과 대학지원, 공공 사회서비스 등 다수 시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 악화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역시 지난 4년 동안 63조 8천억의 감세가 되면서 재정적자 늘었고, 수많은 복지과제가 앞에 있지만, 재원마련이라는 결정적인 암초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재벌 증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6.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줄어든 파이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도 줄어들고, 소득 몫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도 줄어들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시민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각자 살기 위한 경쟁만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 스펙경쟁, 취업경쟁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정규직도 고용불안이 여전하여 비정규직과 제대로 연대하지 못하고 각자 살기위해 몸부림친다.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상인들, 취업경쟁과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빼앗겨버린 청년들, 서로 연대할 여유조차 없게 되었다!!

그래서,

7.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가 압도하기 시작한다?

로버트 라이시는 이 모든 결과 미국의 정치는 더욱 추잡해지고 극단화되고 무력해져가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고 개탄하고 있다. 극우 티 파티(Tea Party)가 기세를 올리면서 긴축을 밀어붙이던 2011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러나 미국시민들도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털고 일어나 분노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We are the 99%”라는 구호아래 월가 점령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대선 시점까지만 해도 사상 최저 투표율인 63%투표를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월가 점령운동보다 무려 3년이나 빠른 2008년 봄, 거대한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민영화에 저항해서 일어난 한국 시민들이다.

그리고, 월가 시위대들이 거리에서 저항하던 2011년 10월,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대대적인 투표참여로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킴으로써 저항에 참여했다.

2012년 겨울에는 어떤 저항을 할 것인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에서 시작할 것이다.

새사연 회원 대선참여 캠페인

**6 to 9** 투표시간을 **9시**까지